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14, No. 1, 2003

歌辭文學圈 亭子建築의 空間構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Constitution of Jungja in the Gasa Literature Area

최선희*
Choi, Sun-Hee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constitution by analyzing the Jungja in the Gasa (an old form of Korean verse) literature area. These Jungja architectures were composed at Damyang-gun and all over Mt. Moodeung in Chosun dynasty. It can be found several characteristics through 10 Jungja architecture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conclusion of research is as follows.
1. There is a spatial function of Byulsu where the daily life can be managed.
2. The development of introduction part induces a concept of private space.
3. It has structures with openings that can form the various constitution of space.
4. There are heating facilities that people can spend their time in four seasons.

Keywords : Gasa Literature Area, Jungja, Byulsu, Opening

I. 서 론

1. 연구배경

전통건축 가운데 정자(亭子)건축은 예로부터 단일 건물로 비교적 작고 단순한 구성 형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자건축의 시초는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신라 소지왕(炤知王) 10년(488)에 왕이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 정자와 서출지(書出池)에 관련된 전설이 쓰여진 것을 보면 못 가에 있었던 정자임을 알 수 있다.[1]

또 「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27 백제 무왕조(武王條)에 보면 634년에 궁 남쪽에 연못을 파고 물을 20여 리나 끌어 들였으며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 속에 섬을 만들어서 방장선산(方丈仙山)에 비겼다. 655년에 의자왕은 태자궁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궁 남쪽에 망해정(望海亭)을 세웠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우리나라의 정자건축[2]은 이미 삼국시대[3] 부터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누각(樓閣)은 높은 다락이나 언덕 혹은 대(臺)위에 세운 건물을 말하며, 정자(亭子)는 반드시 높게만 놓이지는 않고 경관이 좋은 곳을 택하여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살림의 기능을 갖는 건물이 아니고, 원림(園林)의 공간 또는 휴식공간으로서 자연을 즐기며 서정의 감(感)을 돋구어 시를 읊거나 놀이와 풍류를 즐기는 곳이라는데 일반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가사문학권의 정자들은 학문을 가르치는 정사(精舍)의 기능이나 시단(詩壇)을 이루어 가사문학이라는 결정체를 만들어 내는 등 일반 정자들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 건축 구성적 특질을 고찰해 볼 필요와 가치가 있다고

*정회원, 경원대 건축학과 실내건축전공, 박사과정

1) 「三國遺事」 卷第一射琴匣條.
2) 정자건축은 원래 넓은 의미로 누정건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가사문학권을 이루는 무등산권역의 정자건축을 중심으로 다루기에 높은 언덕이나 대지 위에 세운 누각은 배제하고, 가사문학 활동을 중심으로 사용된 정자를 그 대상으로 한정하려 한다.
3)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신선사상과 함께 기록이 있으며 경주박물관 소장의 통일신라시대의 누각문양전도 있다.

생각된다.

가사문학권 정자들은 경상도 지방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승경정자와는 달리 학문연구나 강학(講學), 시작(詩作) 등과 같은 업무기능을 겸비했던 별서(別墅)[4]의 정자군을 전라남도의 담양군과 무등산권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건축된 연대는 주로 조선시대 중엽이며, 한자문학권의 시대에서 국문의 창작적 문학작업으로 가사문학이라는 한 장(章)을 형성해 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결과에 주목하게 된다.

2. 연구목적

가사문학이 태동하게 되는 이면에는 어떤 환경적인 시설이 어떻게 뒷받침되었는지 고찰해 볼 충분한 가치를 갖게 된다. 가사문학의 산실로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별서의 평면구성과 활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단순한 휴식이나 유희공간으로서의 정자가 아닌 시작(詩作)이라는 창작활동과 일상생활의 기능을 담는 최소한의 공간으로서의 별서의 가치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대의 주거기능에서도 요구되는 응접실이나 서재의 공간, 재택근무 공간, 자녀교육시설 공간 등의 다양한 활용이 '가사문학권 정자건축'에서 이미 전개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별서 공간의 재현보다는 요구되는 다기능을 소규모 공간에 다양화 할 수 있는 정자 공간의 평면과 공간구성의 특질을 고찰함으로써 가사문학권 정자건축의 의미를 재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1. 조사개요

조사 대상은 일반적인 민중의 모정이나 주변경관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승경정자를 제외하고 조선시대에 형성된 전라남도의 담양군과 무등산권역 일대의 가사문학권에 있는 소쇄원의 제월당과 광풍각, 면앙정, 환벽당, 식영정, 송강정, 풍암정, 죽림재, 명옥헌 등 9개의 정자와 유일하게 고려 말에 형성된 독수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로 현재 남아 있는 가사문학권의 정자들을 답사하면서 촬영했던 사진, 문헌에 남아있는 문학작품, 소장되어 있는 그림, CAD로 작업한 평면도 등을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10개의 정자를 별서와 다른 살림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생활의 기능을 담는 주거공간 기능, 학문연구 및 교육시설 공간의 기능, 시작활동 및 응접실, 서재, 거실, 시설의 기능 등으로 구분하여 규명함으로써 별서 기능의 정자들이 갖는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을 분석한다.

정자건축의 접근과정과 실내공간의 크기와 규모를 확인해보며, 난방시설의 형성 및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개구부의 구조를 검토하므로 별서 공간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 정자의 숨겨져 있는 사상적 배경을 고찰한다.

III. 가사문학권 정자건축의 형성과정

조선시대에 50년 동안 계속된 네 차례의 사화와 200년 동안 반복된 전쟁과도 같은 당쟁의 와중에서, 현실 정치에서 도태되거나 소외된 사대부들은 주로 자신의 출생지나 연고지로 낙향하여, 그들만의 활동공간을 창출하게 된다. 그런 요구에서 만들어진 건축양식이 바로 정자이고,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를 '정자문화(亭子文化)'라 한다. 이러한 '정자문화'가 특히 발달한 곳 중에 하나가 전남 담양이다.

가사문학권의 정자배치도(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담양군 고서면과 봉산면 그리고 남면 일대에 점점이 흩어진 소쇄원, 식영정, 명옥헌, 송강정, 면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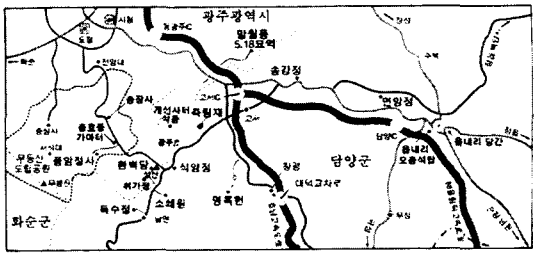


그림 1. 가사문학권의 정자배치도

4) 김동수(1985), 호남문화연구 제14집, 전남지역의 누정 조사 연구(1), p.64-p.68에서는 별서를 그 외 濟室, 鄕約施行處, 養老・敎化所, 宗會所, 治水, 射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독수정, 죽림재 등의 정자와 원림·별서들은 잇닿은 무등산 북쪽 자락의 환벽당, 풍암정과 더불어 이 일대의 정자문화권을 이룬다. 이 공간에서는 이 지역의 문인들이 모여 풍류를 즐기면서, 수많은 시와 가사를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등산 자락 아래에 위치한 이 곳을 소위 '가사문화권(歌辭文化圈)'[5]이라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가사문학권 정자개요 표 1에서는 가사문학권을 이루는 주요 정자들의 설립연도, 설립자, 배치향방, 규모, 소재지를 시대순서로 정리해 보았다.

대다수의 가사문학권 정자들이 남동향이나 동남향으로 무등산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 연대도 16·17 세기에 형성된 공통성이 있다. 그 중에서 독수정은 시대적으로 고려말기에 설립되었으며,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굳은 절개를 혼자라도 지키겠다는 의미로 북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이성(相異性)이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성행한 산수원림의 기법을 이 지방에 도입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은둔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여타 정자들과 동일하여 가사문학권의 정자에 포함하였다.

표 1. 가사문학권 정자개요(건립시대순)

정자명		설립연도	설립자	향 방	칸 수	소재지
독수정		1390	전신민	북 향	정면3칸 측면3칸	담양군 남면 연천리 산 91
소쇄원	제월당	1527	양산보	동남향	정면3칸 측면1칸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
	광풍각	1527	양산보	동남향	정면3칸 측면3칸	
면앙정		1533	송순	동남향	정면3칸 측면2칸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402-5
환벽당		1554	김윤제	남동향	정면3칸 측면2칸	광주시 북구 충효동 387
식영정		1560	김성원	동남향	정면2칸 측면2칸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 75
송강정		1584	정철	남동향	정면3칸 측면3칸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274
풍암정		1602	김덕보	남동향	정면2칸 측면2칸	광주시 북구 충효동 718
죽림재		1623	조수문	동 향	정면2칸 측면2칸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338
명옥헌		1652	오명중	남동향	정면3칸 측면2칸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513

5) 김병인, 소쇄와 풍류, 정자문화권을 찾아서, 호남문화연구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사문학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문헌상의 자료를 중심으로 입증하게 됨으로 '가사문학권'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IV. 별서의 공간구성

1. 별서와 다른 살림채와의 관련성

별서란 생활 근거지와 휴양을 겸하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별장이다. 이러한 정자건물들은 가운데 방을 두고 주변에 마루를 개방한 형식을 취했으며, 온돌방과 마루가 공존함으로써 기숙과 휴양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터가 될 수 있었다. 마루만으로 구성된 민중들의 모정이나 좋은 경치를 즐기며 여흥을 위한 승경정자들과는 다른 유형이다. 별서의 정자는 잠자고, 살림채에서 날아온 밥을 먹고, 손님을 맞고, 공부를 하며, 수양을 하는 별당과 같이 사용되었다. 가사문학권 가운데 성산별곡의 성산동 3승[6]인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은 특히 별서 이면서도 일상생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살림채가 조성되어진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1) 소쇄원은 조선조 중종때 양산보가 경영하던 별서정원으로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 윤선도가 조성한 부용동과 함께 조선조 별서정원의 모본이며, 주변의 식영정과 환벽당과 함께 성산동 3승으로 유명하다.

소쇄원은 크게 4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입구의 대나무 숲에서 대봉대의 정자까지 도입부, 애양단 마당의 갑자기 넓어지는 앞마당, 제월당을 중심으로 밝은 사생활 공간인 안마당, 계곡과 폭포 그리고 광풍각으로 이루어지는 계곡정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7]

현재는 소실되고 없지만 우암 송시열의 수필본에서 묘사된 내용인 소쇄원도(그림 2)나 소쇄원 배치도(그림 3)에서 볼수 있듯이 내정(內庭)인 부훤당과 바로 인접한 곳에 고암정사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실되어 터만 남아 있고, 담을 두고 바로 옆에 배치된 후정(後庭)으로 제월당을 지어 주인이 거처할 수 있는 내당으로 배치하고 있다. 계정(溪庭)인 광풍각 구역은 원정(垣庭)인 애양단 구역과 함께 소쇄원의 가장 중심적인 옥외생활 공간이

6) 천득염(1999), 전남의 전통건축, 전남대학 박물관
7) 최선희(2001), 공간의 이해와 인간공학, 도서출판국제

며 공적인 공간이다. 제월당인 후정(後庭)은 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도입부인 전정(前庭)과 복숭아나무 언덕인 오정(塢庭)으로 둘러싸여 세분하면 6정(六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쇄원 배치도(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로는 제월당이 생활기능을 담는 공간으로 수납기능을 겸할 수 있는 벽장이 달려 있으며, 사계절을 지낼 수 있도록 아궁이가 장치되어 있다.

2) 식영정은 조선 명종 15년(1560년) 김성원이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억령을 위해 지었다. 임억령은 담양부사를 그만 두고 이 곳에서 은거하며 김성원, 고경명, 정철에게 시를 가르쳤다. 이 때 같이 지낸 이들을 「식영정사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여 식영정을 「사선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식영정 옆에는 또 다른 건물을 지어 「서하당」이라 하였는데, 임억령이 숙식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었다. 이 집의 이름을 따서 김성원을 「서하당」이라 부르게 되었다. 「서하당유고」에 의하면 김성원이 36세에 식영정과 서하당을 같이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하당에서 살림채의 역할이 이루어 진 셈이다.

'엇던 디날손이 星셩山산의 머믈며셔 棲셔霞하堂당 息식影영亭뎡 主쥬人인아 내말듯소 人인生생 世셰間간의 됴흔일 하건마난 엇디 한 江강山산을 가디록 나이녀겨 寂적寞막 山산中듕의 들고아니 나시난고 … (중략)'[8]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은 식영정 주인인 서하당의 산중 사시생활을 읊은 강호 전원가사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성산계류탁열도」 (그림 5)는 서하당유고 안에 있는데, 다음에 규명할 환벽당과 식영정의 배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식영정의 살림채는 서하당이고, 환벽당은 별당이였으며, 김윤제의 본채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다.

3) 환벽당의 배치를 살펴보면, 축대 아래에는 세 단으로 된 화계가 있고 그 밑으로 네모진 연못이 있다. 그것들은 환벽당 마루에서 직접 바라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또 그 아래 넓은 터가 김윤제의 집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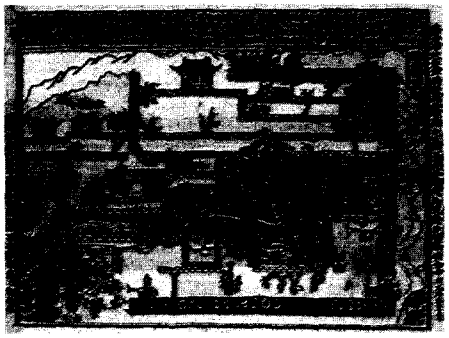


그림 2. 소쇄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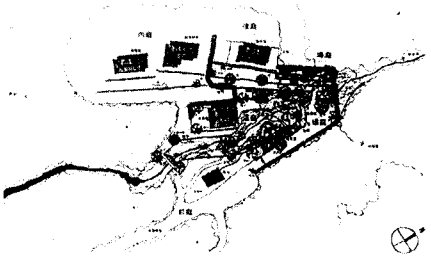


그림 3. 소쇄원 배치도(자료:문화재 관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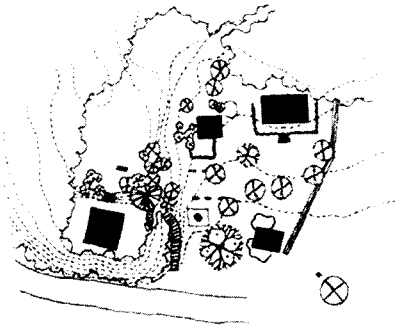


그림 4. 식영정 배치도

그림 5. 성산계류탁열도(자료:이도중의 서하당유고전)

8) 송강 정철, 성산별곡, 가사문학관 소장 자료

채가 있던 곳이니, 별당인 환벽당의 뜰이 아니라 본채에 딸린 후원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 별서의 기능에 따른 공간활용의 방법

1) 생활의 일부 기능을 담는 주거공간 : 소쇄원의 제월당과 환벽당 및 죽림재가 있다. 이 곳 정자의 특징은 실내공간 내부에 수납기능을 겸할 수 있는 벽장이 달려 있으며, 사계절을 지낼 수 있도록 난방용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제월당과 환벽당은 전체 건축면적의 약 1/3이 실내공간이며, 죽림재는 전체 건축면적의 1/2정도가 실내 공간으로 그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른 정자에 비해 실내면적이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환벽당은 2칸 중 가운데가 미서기 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가지 기능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학문연구 및 강학기능을 갖는 강학소, 교육시설 공간 : 소쇄원의 광풍각, 풍암정 등이 해당되며 사계절 강학을 할 수 있도록 난방용 아궁이가 있었다. 정면부는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 분합문으로 조성되어 열개로 하여 걸쇠로 걸게 하였다. 즉 강학을 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문을 열어 다수도 수용하거나, 개인간의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하도록 배려할 수 있게 하였다. 환벽당은 주거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 강학소(講學所)로 시작교육을 받으며 많은 시인을 배출해 내는 과정에서 교육시설로도 겸용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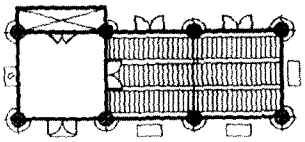


그림 6. 제월당 평면도

그림 7. 제월당 측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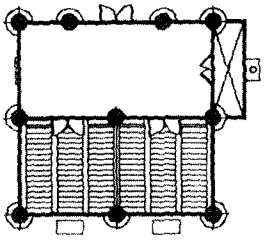


그림 8. 죽림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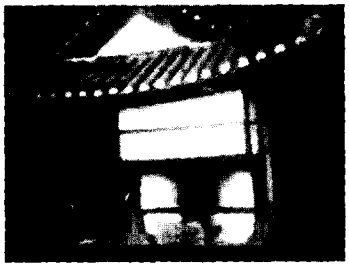


그림 9. 죽림재 측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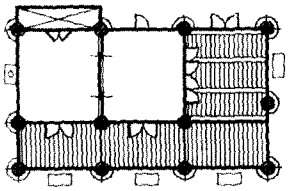


그림 10. 환벽당 평면도

그림 11. 환벽당 배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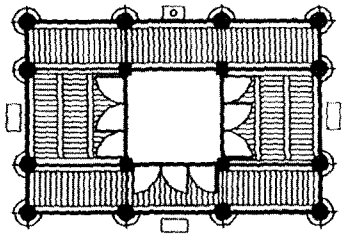


그림 12. 광풍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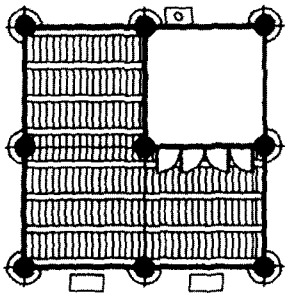


그림 13. 풍암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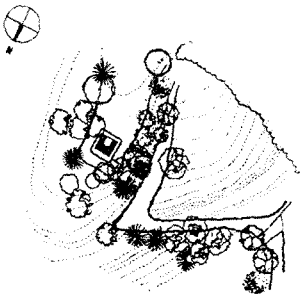


그림 14. 독수정 배치도(자료:정동오교수 실측도면)

3) 응접실, 서재, 거실 기능의 휴양소와 시작(詩作) 활동, 은거를 위한 수양 등의 업무공간 : 독수정, 면앙정, 식영정, 송강정, 명옥헌 등이 있으며, 주변에는 수목이 우거지도록 원림을 조성하여 수양소의 기능을 갖추었다.

(1) 독수정은 정면3칸, 측면3칸 가운데 중심 후면으로 온돌방의 실내공간을 형성하였다. 정면은 4분합문으로, 좌우 측면으로는 여닫이문이 있어 넓은 마루를 형성하므로 주변의 원림을 감상하며 은둔과 수양의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 독수정은 유일하게 건립시기가 고려 말에 조성된 것이다. 조경측면에서도 인공미가 적은 산수원림의 기법을 이 지방에 도입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가사문학권의 다른 정자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이 원림은 입지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산정(山亭)'이지만 온돌의 난방시설로 사계절을 지내면서, 아침이면 조복을 입고 북쪽 송도를 향하여 곡배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 기능적인 면에서도 확실하게 '별서'로 볼 수 있다.

(2) 면앙정 역시 대숲사이 비탈진 언덕을 오르면 정면 3칸, 측면 2칸의 수수한 목조기와집으로 가운데 한 칸의 방을 둘러 사방에 마루가 깔려 있다. 후면의 경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좌우측면과 정면으로 여닫이문을 두어 실내공간의 향방을 시작에 전념하도록 내부의 공간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음을 볼 수 있다. 77세까지 의정부 우참참 겸 춘추관사를 지내도록 많은 벼슬을 하고 치사귀향 하여 실로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다. 유감스럽게 원문이 아닌 한역가로 남아 있지만 면앙정잡가를 보면 면앙정에서 그의 생활의 일면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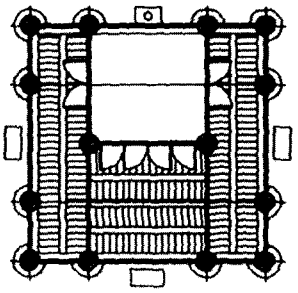


그림 15. 독수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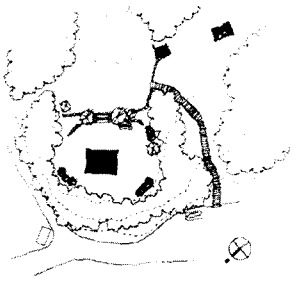


그림 16. 면앙정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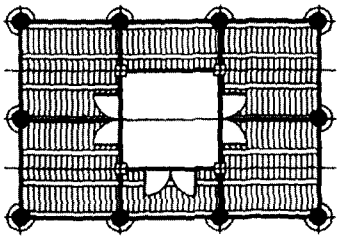


그림 17. 면앙정 평면도

"십년을 경영(經營)ᄒᆞ여 초옥 ᄒᆞᆫ간 지어내니, 나 ᄒᆞᆫ간 ᄃᆞᆯᄒᆞᆫ간에 청풍 ᄒᆞᆫ간 맛겨 두고, 강산은 들일 ᄃᆡ 없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잘새ᄂᆞᆫ ᄂᆞᆯ아들고 새 ᄃᆞᆯ이 도다온다, 외나모 ᄃᆞ리로 홀로 가ᄂᆞᆫ 져 선사

(禪師)야, 네덜이 언매나 ᄒᆞ관듸 원종성(遠鐘聲)이 들리ᄂᆞ니."[9]

송순의 면앙정가는 정극인의 상춘곡과 더불어 호남 가사문학의 원류가 될 뿐 아니라 내용, 형식, 가풍 등에서 정철의 성산별곡에도 영향을 미쳤다.

(3) 식영정은 성산의 한 끝 언덕에 자리잡고, 뒤로는 소나무가 가득한 성산 봉우리가 섰고 앞으로는 창계천(현재는 광주호)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별뫼(星山)가 있는 창계천 좌우로 주변에는 환벽당, 취가정, 소쇄원 등 가사문학의 본고장을 일구었던 유적이 흩어져 있다. 송강의 성산별곡에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성산 주변의 풍경과 그 속에서 노니는 주인인 서하당 김성원을 그리고 있다. 정철은 이외에도 「식영정20영」, 「식영정잡영」 10수, 「서하당야좌」 등 수많은 한시와 가사 및 단가 등을 이 성산에서 시작하여 작품을 남겼다.

식영정의 건축양식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한식기와 건물이다. 「식영정기」를 보면 '시나위, 푸른 솔밭 아래 언덕을 하나 차지하여 조그마한 정자를 세웠는데, 네 귀에 기둥을 세우고 목판을 비웠으며 지붕은 띠풀로 덮고 대발로 날개처럼 차양을 달았다. 바라보면 포랑친 화방같이.....'[10]라고 쓴 걸로 보아 현 위치에서 다만 구조적으로 중수시(1663) 방을 두었거나 초가에서 기와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4) 송강정은 언덕에 소나무 수 천 그루를 심고 정자를 지었으며 정자 뒤편에는 대나무가 담처럼 둘러져 있어 이름하여 죽록정이라 부르고, 아래의 개울을 죽록천이라 하였다.

천상 시인이었던 송강은 현직에 있을 때도 물론이지만 조정에서 물러나자 이곳에 돌아오던 해(1585)에 송강정을 짓고 은거생활을 시작했다. 「송강별집」을 보면 양사미인곡이 그 후에 이 송강정에서 지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은거와 시작(詩作)에 인연이 있는 송강정의 건축규모는 정면3칸과 측면3칸으로 중앙에 후면부로 2칸을 차지하여 온돌방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방 주위의 3방향에 띠살문을 내었다. 지금의 정자는 정철이 당시에 지은 것이 아니

그림 18. 식영정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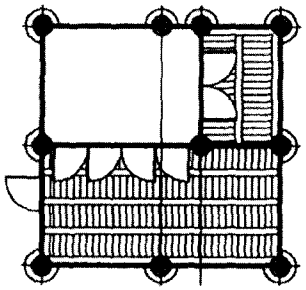


그림 19. 식영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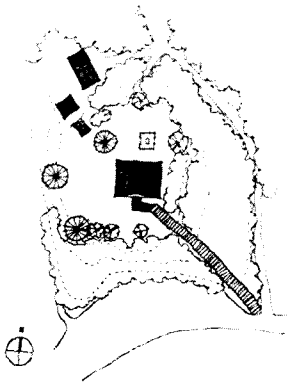


그림 20. 송강정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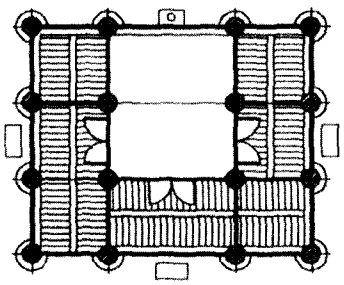


그림 21. 송강정 평면도

9) 송순, 면앙정잡가, 두산백과사전
10) 식영정기(息影亭記) : 식영정의 입지조건과 건물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문헌.

고, 후손들이 중창한 것으로 바로 곁에 사미인곡 시비가 최근(1995)에 건립되어 있으며, 그의 시의 세계가 바로 이 곳에서 번성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5) 명옥헌은 정명홍의「명옥헌기」에서 유래된 말로 정자 건물 서쪽에 있는 위 연못은 작지만 가운데에 바위가 섬처럼 놓여 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류는 먼저 이 연못을 채우고 다시 흘러서 아래쪽 연못을 채우는데 이 물 흐르는 소리가 옥이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하여 명옥헌이라 유래했다. 원래 오명중의 아버지 오희도가 광해군 시절의 어지러운 세상을 등지고 집 옆에 망재라는 작은 서재를 짓고 글을 읽고 지냈다. 그 후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으나 병을 얻어 죽게 되자, 아들 오명종이 아버지가 살던 터에 명옥헌을 짓고 위·아래 두 곳의 연못을 파고 백일홍을 심어 원림을 이루었다. 명옥헌 정원은 주변의 자연경관을 끌어들여 차경(借景)으로 도입한 정사 중심의 자연 순응적인 전통 정원 양식이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네모난 연못 가운데 섬을 설치한 지당정(池塘庭)을 도입하였고, 지당 주변은 수많은 중국 원산종인 자미나무를 주제로 하여 줄지어 심었는데 마치 도잠의 무릉도원경을 연상케 한다.

명옥헌 건물은 정면을 남동쪽으로 자리잡았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인 팔작지붕의 정사(精舍)이다. 건물형태는 전면에는 2단, 측면과 배면에는 1단의 외벌대 기단을 돌렸다. 원형으로 다듬은 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실의 구성은 외부로 퇴칸을 돌리고 그 중앙에 방을 둔 중앙실형이다. 방에는 구들을 두었고 정면부 마루하단에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마루의 외곽에는 평난간을 돌렸다. 인근에 있는 여느 정자와는 달리 배면을 향하여 문을 두어 특이하다. 이는 뒤쪽(북쪽)에 있는 도장사를 바라보기 위함일 것이다. 이 도장사에 배향되었던 인물은 양산보를 비롯하여 오희도, 정한 등이 있다. 그리하여 명옥헌을 도장정(道藏亭)이라고도 한다.

V. 별서의 공간적 특징

가사문학권의 정자관(亭子觀)은 은둔사상을 기본토대로 자연과의 합일을 목적으로 원림을 조성한 별서로서의 기능이 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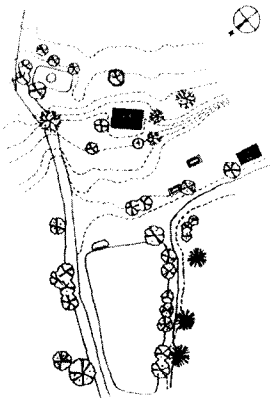


그림 22. 명옥헌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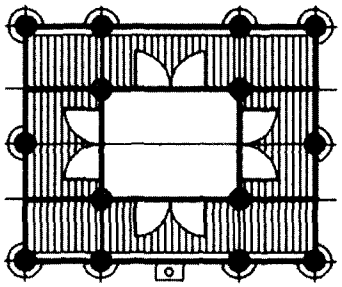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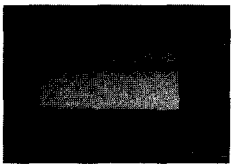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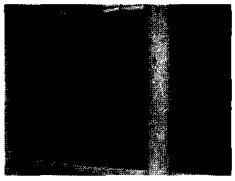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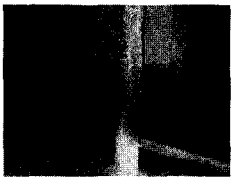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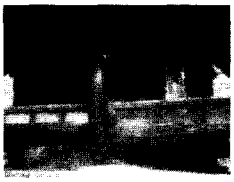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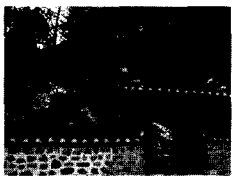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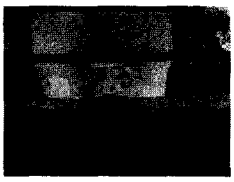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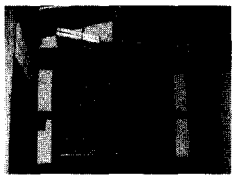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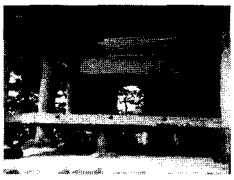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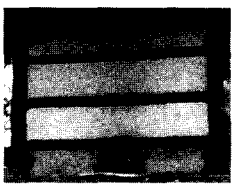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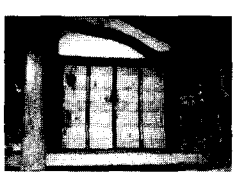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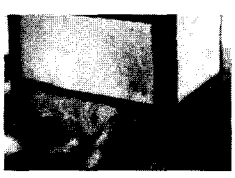
그림 23. 명옥헌 평면도

평면구성과 활용도를 고찰해 보면 시단을 형성하여 시작에 주력하였고, 자신의 학문연구 뿐 아니라 자녀나 문중의 강학소로서 활용하였다.

또한 정자건물과 실내공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보면, 별서로서의 주된기능으로 생활근거지와 휴양을 겸하였고, 그 외에도 다 기능을 만족하게 하는 개구부의 활용과 사계절 사용을 전제한 난방시설 등이 그 특징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별서의 공간적 특징(그림 24)을 보면 은거생활을 영위하며 사생활의 보장을 고려해 도입부는 곡선을 이루는 산정(山亭) 형태임을 볼 수 있다. 쉽게 접근될 수 있는 도입부 보다는 내부의 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privacy)를 확보하였다. 이런 형태의 출발점은 독수정의 산수원림기법이 그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개구부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별서의 정자들은 규모는 작지만 특정한 용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도록 주로 정면에 분합문을 사용하였

정자명		주용도	도입부	개구부	난방시설
독수정		휴양소 서 재			
소쇄원	제월당	생활소 (주거기능)			
	광풍각	강학소 응접실			
면앙정		시 단 휴양소			
환벽당		시 단 강학소 생활소			
식영정		시 단 휴양소			
송강정		시 단 휴양소			
풍암정		강학소 휴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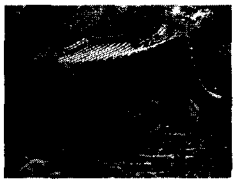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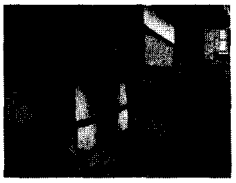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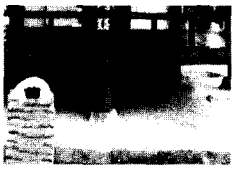
정자명	주용도	도입부	개구부	난방시설
죽림재	강학소 기숙사			
명옥헌	휴양소 서 재			

그림 24. 별서의 공간적 특징(건립시대순)

고, 측면에도 분합문이나 여닫이문을 사용하였다. 필요에 따라 3면을 모두 개방할 수 있는 광풍각의 분합문은 마루와 실내가 원룸화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부지방은 지역 특성으로 동절기가 그리 길지 않아 간단하게 온돌을 통하여 난방시설을 하였다. 면앙정은 막힌 난간과 목판의 배면을, 식영정은 목판의 방풍벽을 형성하여 단열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은둔생활을 위한 수양, 창작, 강학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서 환경적인 역할이 무리 없이 해결되도록 하였다.

VI.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건축 가운데 전라남도 담양군과 무등산 일대에 산재해 있는 10개의 정자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남부지방의 '백리형국'[11]이라고 하는 이 일대는 수려한 산수와 비옥한 평야로 풍부한 재력이 있는 유학자들이 관념적 성리학을 탐구하고, 뛰어난 문장실력으로 여러 시단을 형성해 가사문학을 탄생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정자건축이 별서 공간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환경적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면구성과 공간활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다른 지방의 정자와는 달리 본 조사대상 정자건축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성산별곡의 성산동 3승인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을 통해서 별서의 정자는 교육·휴양·강학·시단·응접실·서재 등 현대의 주택에서도 다기능으로 요구되는 공간활용이 있었다.

둘째, 은둔사상이나 성리학적 사고개념으로 도입부의 전개가 이루어지므로 사적공간 개념의 사생활(私生活)이 유지되도록 배치되었다.

셋째, 다양한 공간구성에 대응할 수 있는 개구부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개는 정면부에 분합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면으로도 여닫이문이나 분합문으로 개방성을 갖추었다.

넷째, 실내공간을 반드시 형성하여 내부 공간의 기능이 별서로서 사계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난방시설을 갖추거나 나무벽판을 형성하여 방풍을 하였고, 개구부와 마루로 인해 통풍되며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자건축의 공간배치와 평면구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주거기능이 구비해야 할 다양성에 대응하는 공간창출을 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과거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시도가 계속 창출되리라 기대해 본다.

11) 白里形局 : 거시적 지리형국으로 볼 때, 담양-광주-창평의 세곳을 포함한 넓은 지역.

참 고 문 헌

1. 박언곤(2000), 한국의 정자, 대원사.
2. 김동수(1985), 호남문화연구 제14집 전남지역의 누정 조사 연구(1), 호남문화연구소.
3. 장경호(1996),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4. 이숭녕(1985), 「한국인의 전통적 자연관」, 서울대출판부.
5. 최선희(2001), 공간의 이해와 인간공학, 도서출판국제.
6. 천득염(1999), 전남의 전통건축, 전남대학교 박물관.
7. 정동호(1985), 보길도 윤고산 유적, 문화재관리국.
8. 가사문학작품집(2001),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관 관리사무소, 도서출판무진.
9. 이용범(1994), 한국 누정건축의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정동오(1986), 「전통적인 정자원림의 입지특성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1. 한재수(1985), 「별서 소쇄원에 표상된 자연현상의 건축미학적 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2. 장양순(1977),「한국 누정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13. 김용기 외(1983), 정자에 관한 연구, 조경학회지.
14. 김용기 외(1992), 조선시대 정자원림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5. 전봉희(1994), 「전남지역의 모정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5호.